

대구주보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2010. 6. 27. (다해) | 제1681호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에제키엘 47,9)



사진제공 : 한국성모기사회

오늘의미사

입당송

모든 민족들이여,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열왕 19,16-19-21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제 뉘의 유산이시옵니까.

제2독서 갈라 5,1,13-1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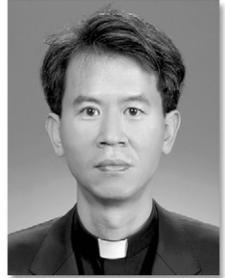
복음 루카 9,51-62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주일의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시성복 바오로 신부
현풍성당 주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은 우리를 내일로 향하게 합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회상할 수 있으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걷고 살아가야 하는 방향과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죽음과 희생제물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의미하기에 아주 엄숙하고도 고통스러운 특별한 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당신을 따르겠다는 이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돌 곳조차 없다.” “죽은 이들의 장시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을 따름에 있어 편안함을 추구하는 환상을 버릴 것과, 미래를 향한 결단, 세상의 소중한 것들마저 버릴 각오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시며 하느님 나라 선포의 중대성과 시급함, 그리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사명과 따름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성서에 보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12,1) 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뒤를 돌아봄 없이 길을 떠난 아브라함, 오늘 1독서에서 엘리야의 부름에

자신이 간직하던 소중한 것도 버리고 따라나선 엘리사,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1,38) 라고 하시며 한생을 바치신 성모님,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인류를 위한 매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부르셨고, 누군가의 결단과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 미사를 지키는데도 하루에 열두 번 더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복음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 선포가 그 무엇보다 앞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그렇기에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확고한 자세와 세상의 모든 사물과 가장 소중한 것들마저도 끊어 버릴 수 있는 분명하고도 자유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란 쉽지만 신앙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신앙인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결단 속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뒤를 돌아봄 없이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을 따르는 오늘의 사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62 참조

미사 참여는 단순한 의무수행일 뿐인가?

교구 사목국

어느 본당에서 신자들이 미사 시간을 잘 지키지 않자 “미사 시작 5분 전에 오시오.”라고 성당 입구에 큰 글자로 써 붙이고 미사가 시작되면 정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문이 닫힐까 염려되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마침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하면 다시 달리기하듯 성당을 쏘살같이 빠져 나갑니다. 바쁜 세상이죠. 시간이 경쟁적이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겠지요?

강론이 길면 투덜대고 파견 강복도 받기 전에 쏘살같이 달려 나가시는 분들. 그런데 과연 미사 시간은 시간을 다루는 경기일까요?

교회는 미사가 ‘교회 즉 하느님 백성의 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전례 행사(백성의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을 뜻합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들, 소극적이고 손님 같은 신자는 억지로 끌려 온 듯 미사 시간도 안 지키고, 뒷좌석에나 앉아 앞사람을 방해삼아 주무시든가 주보를 뒤적이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 나갑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망 때문에 달려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아니겠지요?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교회법, 1247조).

이런 조항은 최소한의 의무 규정이며 성경과 교

회의 가르침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느님 뜻에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옛날에는 쉬시고 이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창세기 2,3)

하느님이 안식일에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느님 안에서 쉬는 날이요, 거룩함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날이며, 서로 복을 빌어주며 하느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은총의 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생명의 축제일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일 만큼은

- ① 하느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 ②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 ③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복과 위로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 가득한 주일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보 알림 게재 - 신청 방법 변경 안내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주보 알림 게재를 접수 받던 기존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에 회원 가입을 하고, 오른쪽 하단 대구주보 보기 배너를 통해서 주보 알림 게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보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 250-3052)

■ 교구 100년사 편찬 위원회

교구의 선교사업(2)

김태형 베드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구내 성직자들을 위하여 지어진 이 병원에서는 부수적으로 가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치료와 약품을 제공하는 무료 진료소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부수적인 일이 주된 일이 되어버렸다. 뜻밖에 몰려드는 많은 환자들로 인하여 이 무료진료소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하루에도 360여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드망즈 주교는 환자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약간의 병실과 양로원구실을 할 수 있는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고 성 요셉성인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요셉 진료소' (시약소)가 1934년 7월 16일 개원되었다.

이 진료소는 조제실, 의사방, 2개의 진찰실, 입원해 치료할 수 있는 공동병실 3개, 간호수녀들의 방, 간호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방1개로 이루어졌다. 이 시약소가 개원하는 데는 하나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의사, 약사 조합이 이 무료 진료소가 개원이

되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리라는 것 때문에 조합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반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망즈 주교는 진료소를 '도립병원의 부속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을 하였다. 신자였던 도립병원 원장이 정기적으로 내왕하며 진료를 하였고, 원장의 정기적인 방문에 대한 사례금은 교구에서 지불하였다. 그 외에 간단한 진료와 시약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여러 수녀들이 맡아 봉사하였다. 환자들로부터 일체의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소가 지출하는 경비는 상당한 액수였다. 하지만 드망즈 주교는 그 경비를 요셉성인의 도움에 호소하며 해결하여나갔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수녀들은 찾아오는 환자들의 개종을 유도하기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 결과 개종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료진료소 사업은 원래의 뜻과는 달리 선교에 큰 성과를 내게 되자 교구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된다. 드망즈주교도 이 무료진료소 사업이 외교인을 개종시키는데 뜻하지 않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무료진료소 사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 방법 중에서 실질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교구

인내심을 가지고...

박성규 엘리지오





영성의 향기

::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샬롬(평화)이라는 말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샬롬’이라는 말이 바오로 사도 서간문의 인사말에서도 사용되는 데 이때 ‘샬롬 (평화)이라는 말이 바오로에게 있어서 단지 소극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평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사되었고 선사되는 평화’를 의미하는 말로써 바오로의 중요 개념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라는 로마서 5,1의 말씀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 바오로 사도의 평화

사도 바오로에 의하면 평화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주시는 평화이지 인간이 만들어 내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먼저 신자들에게 ‘평화와 은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의 편지 서두 다음에는 당연히 감사의 기도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로서 ‘하느님의 은총(charis)’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길은 생각

나를 대신한 사랑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팔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음식도 간신히 삼키는 정도였습니다. 소년은 매일 할아버지 방으로 점심을 챙겨 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년은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냈지만,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그 일에 싫증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엄마가 할아버지를 먹여 드리세요!" 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으니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원래 아주 건강한 분이셨지. 그런데 네가 아기였을 때 사고가 생겼단다. 불이 났었지. 지하실에서 일하던 네 아버지는 네가 엄마와 함께 있으리라 생각했고, 나는 네가 아버지랑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래서 각자 급히 집을 빠져나왔던 거야. 그때 먼저 나와 계셨던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시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 가셨단다. 2층에서 너를 찾아내신 할아버지는 젖은 담요로 너를 감싸 안고 미친 듯이 뛰어나오셨단다. 그 날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심한 화상뿐 아니라 연기에 질식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어."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아무런 불평 없이 점심을 챙겨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

- 율겨온 글입니다. -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대구대교구 산하기관 5
- 언론기관 · 출판사 · 서원 -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 사목기획 실장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교구산하에 여러 언론기관, 출판사와 서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해왔습니다. 교구가 운영하는 각종 언론기관, 출판사와 서원이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신문사(대표전화 1588-1927)는 1927년 4월 1일에 창간된 한국천주교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기관입니다. 사장은 이성도신부입니다. 가톨릭신문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아래에서 교회의 정보교류와 청년문화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대구 중심의 남방교회 평신도들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교구와 대구교구(남방교회)가 있던 때였습니다. 가톨릭신문사는 주간으로 신문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수원교구만을 위한 수원교구판과 미주지역을 위한 미주판 THE CATHOLIC TIMES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관련 서적을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고 성미술이나 성음악과 같은 문화, 학술사업 등의 콘텐츠를 전파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교구 신자들은 각 가정마다 일반 신문뿐만 아니라 가톨릭신문 한 부는 꼭 구독 하셔서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신문사는 여행사인 **가톨릭신문사 투어(전화 053-428-5004, 5600-1)**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성지순례를 통해서도 신앙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사(대표전화 053-255-5001)는 1946년 3월 1일에 창간되었습니다. 사장은 이창영신부입니다. 그동안 매일신문은 격동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교구가 운영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일간지로 성장하였고 언론을 통한 교회의 복음화에 공헌해왔습니다. 나아가 각종 문화, 이벤트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습니다. 또 기획사인 **매일애드(전화 053-251-**

0500)를 운영하고 있고, 생수업체인 **소백산수(전화 054-638-5100~7)**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매체의 발달로 활자신문의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매일신문이 가톨릭정신을 중심으로 지역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구평화방송사(대표전화 053-251-2600)는 1996년 9월 9일 매스컴을 통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장은 황용식신부입니다. 평화방송은 라디오라는 방송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문화사업을 전개하며 출판을 통해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빛잡지(전화 053-255-8405)는 1983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담당은 교구 사무처장 하성호신부입니다. 빛잡지는 우리교구의 월보로 교구의 소식을 전하고 신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신자들의 네트워크와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빛잡지가 교구주보와 함께 더욱 교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건인쇄출판사(전화 053-252-6737)는 교구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담당은 교구 관리국장인 장영일신부입니다.

분도출판사(전화 054-970-2400)는 왜관 성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사장은 선지훈신부입니다.

베네딕도 미디어(전화 054-971-0630)는 왜관 성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사업체입니다. 담당신부는 임세바스찬신부입니다.

계산서원(전화 053-257-8962)은 한국성모의 자애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서원이고, **바로로팔서원(전화 053-425-5185)**은 성바로로팔수녀원에서, **성바로서원(전화 053-256-4592)**은 성바로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서원입니다. 



■ 시노드 마당

“본당 공동체” (1)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시노드 사무국장

대구대교구 1차 시노드에서의 본당상

대구대교구 제1차 시노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사안이 ‘본당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시노드가 폐막되고 난 이후, 다른 의제들에 있어 비교적 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안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당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때 ‘소공동체 운동’이야말로 본당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려, 이 후 교구장 교서를 통하여 교구의 지속적 비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당의 소공동체 운동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자들의 참여입니다. 본당 신부들로 하여금 본당활동 및 의사 참여를 위해 문을 열 수 있도록 촉구하여 신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꾀하였습니다.

둘째, 반모임의 활성화입니다. 본당의 대형화가 가져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또한 반모임은 기초 공동체로서 소공동체의 핵심이므로, 특별히 복음나누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신자들끼리, 그리고 이웃들과 형제애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사목평의회 구성입니다. 본당의 구조를 소공동체를 전개하는데 합당한 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목평의회를 만들고 기존의 평협은 사도직을 하는 단체의 협의회로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넷째, 사목계획의 일관성입니다. 특별히 소공동체 운동을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본당의 중장기 계획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서 본당신부의 인사이동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목 계획이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시노드에서는 소공동체 운동과는 별도로 앞으로의 본당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지역 공동사목, 본당 재무평의회 결성, 평신도 재교육 및 전례참여, 본당 제 단체 활성화, 공소의 활성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교구 소공동체 운동의 현실

이렇듯 제1차 시노드 이후 본당상의 가장 큰 변화의 축은 본당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공동체 운동의 추진입니다. 교구 소공동체 운동은 제1차 시노드 이후 1999년 8월 교구장 명으로 평협 중심의 본당 조직이 소공동체 중심의 본당 조직으로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 소공동체 지도자 대회 이후 2005년 교구장 사목교서를 통하여 각 본당의 소공동체 운동의 확대를 결의하였고, 2005년 3월 당시 73개의 본당 618개의 공동체가 매주 복음나누기를 통하여 소공동체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2008년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서도 본당의 소공동체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었고, 작년 교세 통계를 보면 63개 본당에서 1,106개의 소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구 소공동체 운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대성당 설계공모 안내**

• 기간: 6.14(월)~9.13(월)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서 등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 모임 행사 ★

본당 반주자를 위한 여름학교

• 일시: 7.9(금)부터 주1회(4주)
• 강사: 박수원, 김민정, 문의: 255-4847

빛사랑 여름 콘서트

“초대가수 For와 함께”
• 일시: 7.24(토) 18:00~22:00
•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정원
• 대상: 가족,개인,단체 (마감 7/18)
• 신청: 다음카페 luxamor486

★ 성소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상담

• 시간: 08:00~17:00까지(언제나 가능함)
• 전화: 622-4408(carmeldg@hanmail.net)
• 매일 첫토 기도(17:00)에 초대합니다(대상: 젊은이)

★ 피정 ★

가르멜 수도회 성소피정

• 일시: 7.2(금)~4(일), 장소: 인천 가르멜수도원
• 대상: 성소에 관심이 있는 33세 미만의 형제들
• 문의: 필립보네리 신부 010-3169-741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상반기 일일 피정

• 일시: 7.3(토) 9:30
• 장소: 대봉성당
• 강사신부: 서덕교(야고보) 사동성당 주임
• 주관: 대구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거룩한 독서 피정

• 일시: 7.13(화)~17(토) 4박5일
• 장소: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회(경남 고성)
• 문의: 016-816-1986/ 010-8873-1348

★ 교육 모집 ★

성요셉재활원 입소자 모집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054-954-4176)

푸른평화 가족캠프

• 일시: 7.10(토)~11(일) 1박2일
• 유아·초등·중등 통합예술테라피
• 일시: 7.27(화)~8.19(목) 매주 화·목(8회)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010-3513-2225

청년 재속프란치스코회원 모집

• 봉헌식: 8.28(토) 14:00
• 장소: 월배 프란치스코수도원 경당
• 자격: 만35세 이하 가톨릭신자
• 문의: 632-9800/ 010-7503-8852

대구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성교육강사 양성교육 실시

• 일시: 7.19(월)~24(토), 교육비: 20만원
• 문의: 653-7755(http://www.dgyouth.net)

7월 영여성경공부반 모집

• 개강: 7.1(목) 10:00~12:00, 화·목 강의
• 과정: Romans 및 Numbers, 월회비2만원
• 문의: 관덕정 254-0151/010-2578-5535

노틀담 오르프 연구소 여름 단기 세미나

• 일시: 7.29(목)~31(토) 9:30~18:00
• 장소: 상인동 소화 어린이집
• 문의: 010-7392-1227/ 010-9034-4911
http://cafe.daum.net/notredameoff

가톨릭근로자회관 하계 영어연수

• 일시: 7.18(일)~8.15(일) 4주
• 장소: 마닐라 St.Joseph's school
• 대상: 초 3 - 중 3
• 문의: 253-1313/ 255-0830

※대학생 참가자도 모집합니다.

성비으로 안나의 집 가족 모집

• 대상: 만 65세이상 만80세 이하
• 어르신으로서 신변자립이가능한 어르신(여성)
• 입소비용: 월 생활비 (40만2천원) 보증금 5백만원
• 구비서류: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054-382-1634/ 383-5570

선교활동 봉사자 구함

• 대상: 성서학교/ 신학원교육 수료자
• 나이: 40~60대 여성
•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신교단(계산성당 문화관 3층)
781-6100 / kepan-seok@catholic-sm.org

★ 안내 ★

매주 월요 선교미사

• 일시: 매주 월 11:30, 장소: 계산성당문화관 3층
•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신교단 781-6100

군중후원회 미사 변경 및 신설안내

• 군중후원회 성모당미사 7월부터 장소 및 일정변경
: 계산성당 매일 넷째 월요일 11:00
• 경주지역 7월부터 군중후원회 미사신설
: 성동프린텔(구-근화여고)413호 매일 첫 월요일 11: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반)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764-47413(http://www.성가정입양원.com)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구미지역 밀알우회미사	6월 28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미바회 미사	7월 2일(금) 오후2시	성모당
4대교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미사	6월 2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성모의 기사회 미사	7월 3일(토) 오전10시	월배성당내수도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7월 1일(목) 오후2시	성모당	푸른군대 첫토오 신심미사	7월 3일(토) 오후2시	성모당

이시우 신경외과
http://혁우외과
척추 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 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내당역 3번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T.652-0119 / 이시우(요한)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33)255-7222;교구청(성모당내 교육원 가동3층)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엔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아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 일(트리산도)신부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탈모
2F 여드름,센터 3F 비만,미용수술
손제경 다미아노
김인주 레이저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오월의 정원
wedding culture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라마
결혼·돌·회갑·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사티센터(구. 밀리오레)
예약문의 664-7000
www.maygarden.kr

가정·사무실·관광사·해외·이사전문
로젠이사
LOGEN 로젠이사
(대구본부)
전국화물용달취급 대표:서정원(프란치스코)
www.logen2424.co.kr
T.754-6688 H.P.010-9516-5511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상인 행복을 삶 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633-7504/634-7504
원장:강원일(안드레아),권영,구선주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야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